

현안^과 과제

- 2013년 (43회)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퍼펙트 글로벌 스톰(Perfect Global Storm)
 - 초래 가능성과 다보스의 대안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 제 43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23일~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 2013년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문제의 장기화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활력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09(39회)	- 위기 이후의 세계 (Shaping the Post-Crisis World) · 국제적 협력 · 효율적인 거버넌스 · 기업가 정신과 혁신 · 금융보호주의 · 세계경제 새 질서 · 아시아의 부상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2010(40회)	- 더 나은 세계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금융개혁 압력 · 신중한 세계경제 낙관론 · 글로벌 리더십 변화 · 기후변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리커창 중국 부총리 등
2011(41회)	-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 무역불균형 ·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 회복 격차 심화 · 노령화 · 자원부족 · 기술혁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2012(42회)	-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 4가지 모델 · 6대 도전과제	비크람 팬티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 책임자 피터 보서 셀사 대표 등
2013(43회)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마틴 소렐 WPP그룹 회장 리디오쿠이 칭화대학교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013년 다보스 포럼 일정.

2. 2013년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 퍼펙트 글로벌 스톰 가능성 고조

① 퍼펙트 글로벌 스톰(Perfect Global Storm)의 개념

○ 퍼펙트 글로벌 스톰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동시적 쇼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닥치게 될 글로벌 재앙을 의미함

-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 리스크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이 있음

- 지구환경 시스템을 압박하는 리스크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자연재해 증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증가, 물 공급 위기 등이 있음

< 퍼펙트 글로벌 스톰 발생 과정 >



② 퍼펙트 글로벌 스톰 유발 리스크

○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글로벌 금융위기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경기 침체,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의 부작용이 지속,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세계는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임

- 세계 경기 침체 지속

·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지속,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각각 3.0%, 7.4%로 정점을 기록 후 2012년에 1.3%, 5.3%로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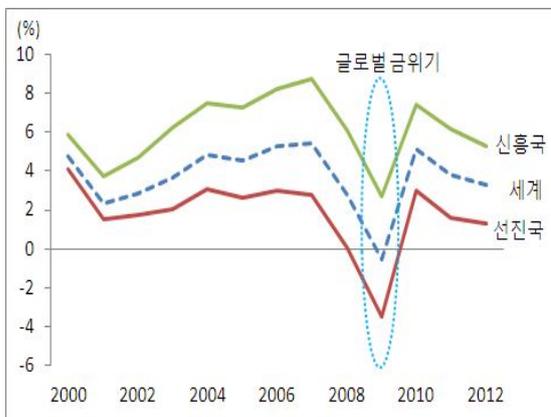
- 선진국의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과 국가부채

-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불균형이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증가
-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9년 각각 89.7%, 210.2%, 80.0%에서 2012년 각각 107.2%, 236.6%, 93.6%로 확대될 전망

- 심각한 소득 격차

- 심각한 소득 불균형 지속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OECD 평균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22개국) 0.300에서 2000년대 후반(34개국) 0.314로 증가함

<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 선진국의 재정 수지와 부채 추이 >

(GDP 대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미국	재정수지	-13.3	-11.2	-10.1	-8.7
	국가부채	89.7	98.6	102.9	107.2
일본	재정수지	-10.4	9.4	9.8	-10.0
	국가부채	210.2	215.3	229.6	236.6
유로	재정수지	-6.4	-6.2	-4.1	-3.3
	국가부채	80.0	85.4	88.0	93.6

자료 : IMF.

○ (지구 환경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 증가, 기후변화 적응실패, 물 부족 등이 향후 10년 동안 지구 환경시스템을 압박하는 글로벌 리스크로 존재할 것임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신흥국의 빠른 산업화, 화석에너지 사용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48.7GT(Giga-tonnes)에서 2020년에 50.8GT로 43% 증가 예상¹⁾

- 지구 온난화 가속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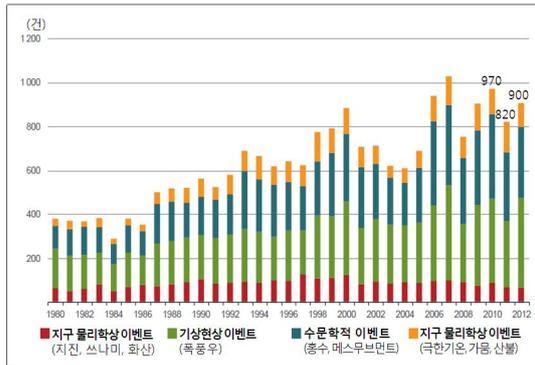
-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900건으로 2011년 820건에 비해 80건 증가
- 2012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600억 달러로 30년(1982년-2011년)평균 1,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

1)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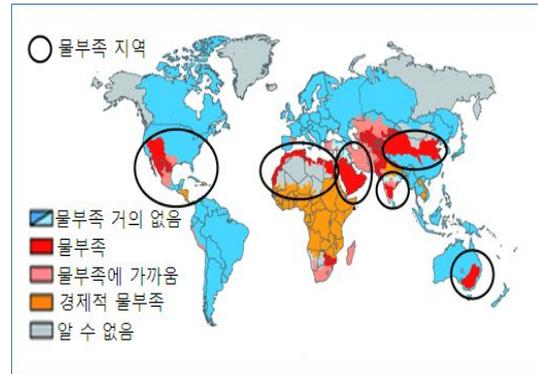
- 물 공급 위기

- 지구 온난화,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과 인구 증가 지속으로 세계는 물 부족 현상에 처할 것임

< 자연재해 발생 건수 추이 >



< 물 부족 지역 >



자료: Münchener Rückversicherungs-Gesellschaft, Geo Risks Research, 2013년 1월.

자료: IWM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주: 경제적 물부족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물부족임

<참고>

< 2013년 글로벌 리스크 >

리스크 범주	2013년 글로벌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10개)	만성적 재정 불균형, 만성적 노동시장의 불균형, 에너지와 농산물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신흥국의 경착륙, 금융시스템 실패, 장기적인 사회기반 시설 투자 소홀, 유동성위기 재발, 심각한 빈부격차, 예견할 수 없는 규제의 부정적 결과,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10개)	위태롭고 취약한 정부, 대량파괴 무기의 유포, 견고한 조직 범죄, 외교적 충돌 해결의 실패, 글로벌 통치기구의 실패, 군대화, 견고한 붕괴의 확산, 테러리즘, 단독적인 자원의 국유화, 불법 무역증가
기술적 리스크 (10개)	중요한 시스템의 실패, 사이버 공격, 지적재산권 실패, 대량 디지털의 오류 정보, 정보 유출, 광물 자원 공급의 취약, 제도 잔해의 급증, 기후변화 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나노테크놀로지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생명과학 기술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환경적 리스크 (10개)	항생제 저항하는 바이러스, 기후변화 적응 실패, 돌이킬수 없는 환경오염, 땅과 수로 사용 실패, 도시화 실패, 지속되는 극단적인 날씨, 온실가스 배출 증가, 종의 과잉개발, 전례 없는 지구 물리학의 파괴, 자기폭풍의 취약성
사회적 리스크 (10개)	글로벌화의 반발, 식량 부족의 위기, 효과 없는 의약 정책, 인구노령화의 관리 실패, 만성적 질병 증가, 광신도 증가, 이동 실패, 지속 불가능한 인구 성장, 전 세계적인 유행병 취약성, 물 공급의 위기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3, 「Global Risks 2013」.

3. 다보스의 대안 : 핵심 의제와 분야별 아젠다

○ 핵심 의제 : 유연한 역동성(Resilient Dynamism)

- 정치적·경제적인 쇼크로부터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지구온난화로부터 취약해진 지구 환경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유연한 역동성이 필요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 장기 침체 탈피와 향후 닥쳐올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대담한 조치와 비전들이 요구됨
 - 지속성장가능성과 새로운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과 취약해진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 유연성과 민첩함을 갖추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갑작스런 충격에 저항하는 능력,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회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
 - 세계 경제에서 리스크 회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공공, 민간 부문에서 필요

○ 분야별 아젠다(Agenda)

- 올해 다보스 포럼은 퍼펙트 글로벌 스톰의 예방을 위해서 4대 분야의 아젠다와 아젠다별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4대 분야 아젠다 >

4대 분야	아젠다(Agenda)별 논제
글로벌 아젠다 (The Global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의 고고용률을 달성 및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 과제 - 국제금융시스템 개선 방안 -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및 대재앙 리스크 하에서의 세계 활력 회복 대안
지역적 아젠다 (The Regional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각국 신지도자들의 조기 적응 방안 -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조정 - 보호주의 및 국수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통합 및 다자간 경제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소 방안
산업 아젠다 (The Industry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경쟁 및 산업활성화 방안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천연자원 공급 대책 - 신성장동력 발굴과 환경규제 변화의 관계 확립
비즈니스 아젠다 (The Business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 재형성 속 신가치 창출 방안 - 사회적 기술 진화의 미래 적용 방법 - 과학, 기술, 의료 분야의 획기적 발전 활용 방안

자료 : World Economic Form, 2013년 다보스 포럼 요약본.

4. 시사점

- 2013년 다보스 포럼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 재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재부상했다는 점임
 - 특히, 기술혁신과 글로벌 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대안 (Innovational Alternative)을 통해 세계 경제 활성화 방안과 그 동안 붕괴되었던 경제 구조, 금융 구조의 신뢰 재건 방안이 주조를 이룰 것임
 -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대응방안과 환경오염 이슈에 관한 논의가 재부상
 - 또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불균형 문제와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도출할 것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년 연속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심각한 소득불균형과 만성적인 재정불균형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강조
- 2013년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 영토 분쟁, 중동지역의 민주화, 보호주의 등이 이슈화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
 - 거시경제정책 보완과 영토·해양 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의 과제를 가진 각국의 새로운 리더들은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을 통한 대안 모색
-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대응이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세계 경제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한 단기 경기 대책과 더불어 경제구조 고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
 - 인적자본 고도화,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등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또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확대,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등 녹색 성장의 구체화 전략 추진 강화

경제연구본부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